

# 여름방학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내달 실시 '전주 기초·기초학력 향상 집중교육 캠프' 등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개설 학력지원센터 중심으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본청 및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개설된 학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름방학 중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전주지역은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대학의 협력사업으로 기초·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여름방학 집중교육 캠프를 8월 2~4일, 8월 9~11일 두 차례 실시한다.

초등학교 4~6학년 중 희망자를 받아 3일간 국·영·수 위주의 교과 프로그램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어 군산학력지원센터는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어서오세요. 문해력 상담소입니다'를 통해 문해력 및 기초학력을 진단한다. 문해력 진단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1단계 전화 상담, 2단계 방문 상담, 3단계 검사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한다.

기타 내 상담인원 초과 시에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우선 상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완주학력지원센터에서는 오는 7월 28~29일 토론, 탄탄 '속속' 집중캠프를 진행한다. 난독·경계선 지능 진단검사 및 중재교육 대상학생

을 대상으로 △음운성 난독 개선 및 읽기 유창성 집중훈련 △사회성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공감토크 및 놀이활동 △요리를 통해 나를 표현하는 아동 요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김제학력지원센터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캠프 '책이랑 놀자'를 마련했다.

8월 21~23일까지 진행되는 독서캠프는 기초학력 협력교사 순회지도 대상학생 및 난독·경계선지능 중재대상 학생의 문해력 향상을 돕기 위함이다. 독서 방법 배우기, 독서법 실습, 독서스피치 콘서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높여준다.

이밖에도 임실 북쪽 두드림 캠프 순창 초·중등 학습 자존감 향상 캠프, 부안 초·중등 자기주도학습 캠프, 장수 Dream up! 자존감 문해력 향상 캠프 등이 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14개 시군별 학력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원과 기초학력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에 안타깝게 숨진 초등학교 교사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지난 21일 서거석 교육감은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도교육청에 초등 교사 추모공간 마련 서 교육감, 합동분향소 찾아 고인 추모

전북도교육청에 안타깝게 숨진 초등 학교 교사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센터(센터장 정성환)는 지난 21일 전북교육단체총연합, 전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3대 교원

단체와 공동으로 도교육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는 안타깝게 떠난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교원단체와 함께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이후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오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한편 전북교육청 합동분향소는 오는 2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바라는 꿈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면서 “교권이 존중받는 전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 도교육청 직원 30여명 익산 집중호우 피해복구 봉사

전북도교육청 직원 30여 명은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 옹포초등학교를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직원들은 30°C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고, 때때로 쓰러진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학교 현장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 현장을 찾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장의 지원 요청을 받았다.

서거석 교육감은 “갑작스런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학교현장의 신속한 수해복구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내년 전북미래학교 운영 계획 안내

### 사전 신청 교직원들 대상

### 도교육청, 공모 설명회

### 송은정 교수 기초강연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1일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4년 전북미래학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미래학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 내년 전북미래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전 신청한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 38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미래학교 운영 과제, 지원내용, 공모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공모로 선정되는 '2024년 전북미래학교'는 5가지 중점과제와 자율과제 수행을 통해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점과제는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교육환경 구축·활용 △AI·디지털 교과서 대비 AI 코스웨어 운영 △기초·기본학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 수업혁신 등 5가지다.

또 자율과제로는 IB 프로그램, 혁신교육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문예체육, 학교자율 등 7가지 항목 중에서 1가지

를 선택 운영하면 된다.

이에 전북미래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는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교직원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총 67개교를 내년도 전북미래학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미래학교는 기초·기본학력을 기본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면서 “AI·디지털 기반의 교육활동, 미래역량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그 성과가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송은정(중국대 시융합교육전공) 교수가 'AI 코스웨어 활용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주제로 기초 강연을 펼쳤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보건교사 응급처치 역량 강화 연수

### 도내 학교 내 소아당뇨 학생 지원·관리 등에 초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보건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7월 21~22일과 8월 11~12일 두 차례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소아당뇨 학생 지원과 관리, 응급처치 등에 초점을 뒀다. 이는 소아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대처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은성기자

강사로는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 박민희 간호사, 전북대 간호대학 김혜영·박숙경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들이 학교 내 응급상황 발생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한-베 메가트렌드 박람회’ 성공 개최 방안 공유

### 전북대 창업지원단, 베트남 현지서 사전 컨퍼런스 개최... 박람회는 내달 30일 열려

### 베트남 창업창업기관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와 창업지원 협력 위한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다음달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23 한국-베트남 메가트렌드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21일 베트남 현지에서 사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베트남 메가트렌드 박람회는 전북대 창업지원단과 전북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베트남 주요 기관, 바이어,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업을 추진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전북대 창업지원단과 전북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비롯해 호치민시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과학기술부 남부지역, 호치민시 창업지원기관인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SI-HUB)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현지의 28개 언론사 및 핵심 바이어, 투자자들이 초청된 가운데 진행됐다.

컨퍼런스에서는 8월 30일 개최되는 박람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전북대와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는 창업지원 협력과 프로그램의 성공 개최 등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8월 30~31일 베트남 호치민시 GEM 센터에서 열리는 2023 한국-베트남 메가트렌드 박람회는 전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등 권역별 4개 창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다음달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23 한국-베트남 메가트렌드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21일 베트남 현지에서 사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중심대학과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외 20여 개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한다.

박람회 규모도 지난해보다 확대돼 120여 개의 국내 창업기업과 200여 개 이상의 베트남 현지 바이어사 및 유통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전북대는 이번 박람회에서 창업중심대학 예비, 초기, 도약기 창업기업 10개 사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기업 6개 사,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참여기업 1개 사, 창업보육센터 및 희

망전북 POST·BI 입주기업 2개 사 등 총 19개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와 전북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에서 주관하는 한국-베트남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인 유니브 스타콘테스트(Univ. Star Contest) 프로그램이 신설돼 양국 학생 창업팀의 우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트란 민 호안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전북대학교 트란 민 호안 박사과정생(바이오나노융합공학과, 지도교수 이재우)이 초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입자성 오염물질의 높은 효율로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의 분리막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트란 민 호안 박사과정생은 다기능성 기공 유도물질(poregen)을 합성해 초미세 플라스틱의 제거율이 99.7%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수투과도(물의 여과 속도)는 하조준 대비 15배가량 증진시킬 수 있는 고성능 수처리용 분리막을 개발했다.

그 결과 분리막 여과 공정에 요구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1/10 수준으로 저감시켰다. 이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아 52개국 분리막 연구자가 참여한 분리막 국제학술대회(ICOM)에서 전북대 대학원생으로는 처음으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 우석대 오승주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우석대학교 오승주(소방방재학과 박사과정 1차수) 대학원생은 ICCC 2023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과 (사)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지식의 숲이 공동 개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오승주 대학원생은 공리성 주입교수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예방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제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논문은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은성 기자



## ‘학년 무제한·학과별 신청 무제한·횟수 무제한’

### 국립군산대 3무(無)기반 모집단위간 이동제도 '주목'

국립군산대학교의 3무(無)기반 모집단위간 이동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올해 6월 학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보장을 위한 모집단위간 이동제도의 기준인원제한 학칙조항을 개정했고, 학칙 개정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부터 2~4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학과로 자

유롭게 모집단위간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수요자 중심의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해 집중수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는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학사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군산=김관곤기자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정원의 10~20% 인원을 기준으로 모집단위간 이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립군산대학교는 유연한 학사운영과 학생 선택 자율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과 간 이동 제한을 혁신적으로 해제했다.

학년 무제한, 학과별 신청 인원 무제한, 횟수 무제한 즉 3무(無)를 기조로 한 모집단위간 이동제도를 완성하였고,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이를 운영할 계획이다.